

2016. 11. 14. ~ 11. 20. 주간

111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 양배추 생산 및 출하 · 가격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 해금골드키위, 30톤 일본에 첫 수출
- 한국 농식품,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추진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 특화작목 강화, 유기재배 기술 개발
- 전남도 토종약초 '우슬' 건조 및 저장방법 개발 보급

정책동향

- 수발아 피해 벼 모두 매입해 시장격리
- 2016년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사업신청 및 홍보

- 광주국제식품전서 전남 대표 농식품 알려
-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배추·무·양배추 생산 및 출하·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여수시, **돌산갓 알싸미·매코미** 품종보호 출원
- ▶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선 국비 8억 6천만원 확보
- ▶ 광양시, 매실정책 기초자료 매실 생산량 통계조사 실시
- ▶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 사용 승인
- ▶ 장흥군, 2016년 농촌자원분야 경진심사서 최우수상 수상
- ▶ 강진군, **강진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 함평군, 조사료 수급 안정대책 추진
- ▶ 장성군, 베트남 **농식품산업 교류 물꼬 텃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순천 **해금골드키위**, 30톤 일본에 첫 수출
- ▶ 한국 농식품,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추진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3

- ▶ 단호박 반축성 무가온재배 첫 착과위치 설정
- ▶ 자생쭉 향료소재를 이용한 석고방향제 제조방법
- ▶ 대형마트 PB사과 거래량 및 포장재 규격별 매출액 비교
- ▶ 국산 홍차 색·향·맛 향상 적정 혼합방법
- ▶ 전남 특화작목 강황, 유기재배 기술 개발
- ▶ 전남도 토종약초 **우슬** 건조 및 저장방법 개발 보급
- ▶ 무경운 직파재배기술로 생력화·탄소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달콤함에 기능성을 더한 새 품종 고구마 소비자 입맛 잡아
- ▶ 토양 속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정밀 진단 키트 개발
- ▶ 돼지, 겨울에 맞는 사료급여와 환경관리 필요
- ▶ 바이오차·돈분 이용 펠릿형 완효성 비료 개발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7

- ▶ 농가카페 매니저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9

- ▶ 수탈아 피해 벼 모두 매입해 시장격리
- ▶ 2016년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 ▶ 모바일로 여는 상생협력

❀ 해외 농업정보 43

- ▶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
- ▶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국산젓소 유전자원 3년 연속 수출
- ▶ 한국-세네갈 축산연구 협력 방안 논의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1. 2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환매수세를 포함한 기술적 매수세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 강세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및 환매수세로 인해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아시아 유지작물 시장의 강세에 따라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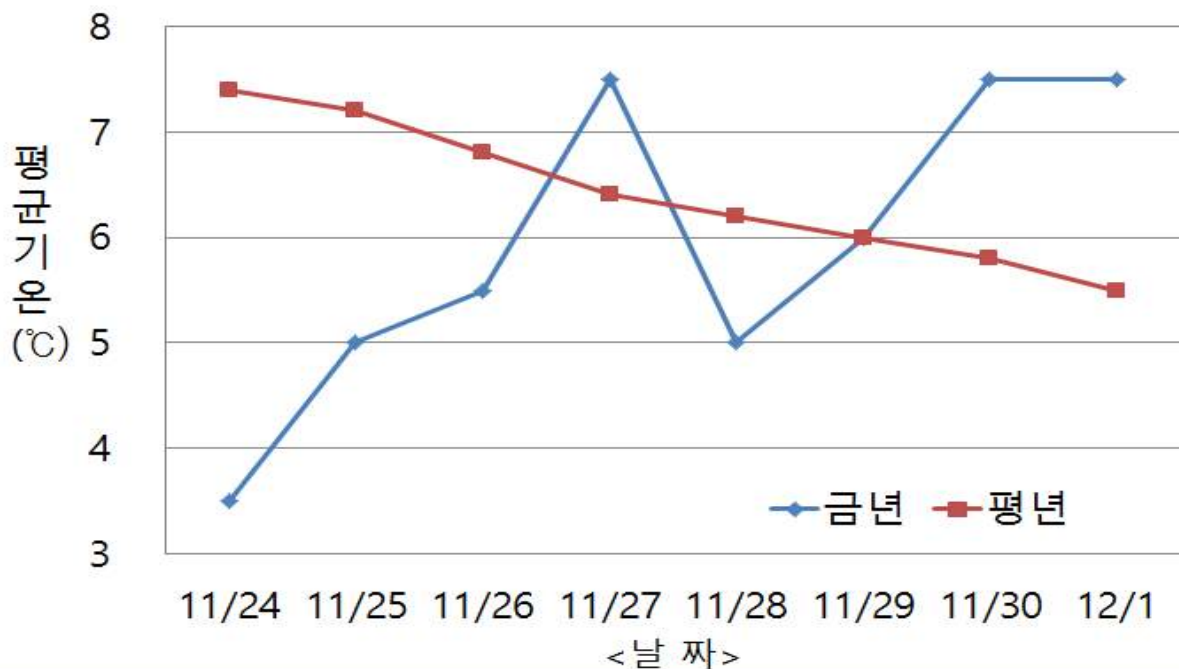
- ▶ 광주국제식품전서 전남 대표 농식품 알려
- ▶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9	6.4	-0.5	10.3	11.7	-1.5	1.6	2.1	-0.5	1.8
11. 24.(목)	3.5	7.4	-3.9	7.0	13.2	-6.2	0.0	2.7	-2.7	1.3
11. 25.(금)	5.0	7.2	-2.2	10.0	12.7	-2.7	0.0	2.7	-2.7	1.6
11. 26.(토)	5.5	6.8	-1.3	10.0	12.1	-2.1	1.0	2.4	-1.4	1.7
11. 27.(일)	7.5	6.4	1.1	11.0	11.6	-0.6	4.0	2.2	1.8	2.2
11. 28.(월)	5.0	6.2	-1.2	9.0	11.3	-2.3	1.0	2.0	-1.0	2.2
11. 29.(화)	6.0	6.0	0.0	11.0	11.1	-0.1	1.0	2.1	-1.1	2.1
11. 30.(수)	7.5	5.8	1.7	12.0	11.1	0.9	3.0	1.6	1.4	1.6
12. 01.(목)	7.5	5.5	2.0	12.0	10.8	1.2	3.0	1.2	1.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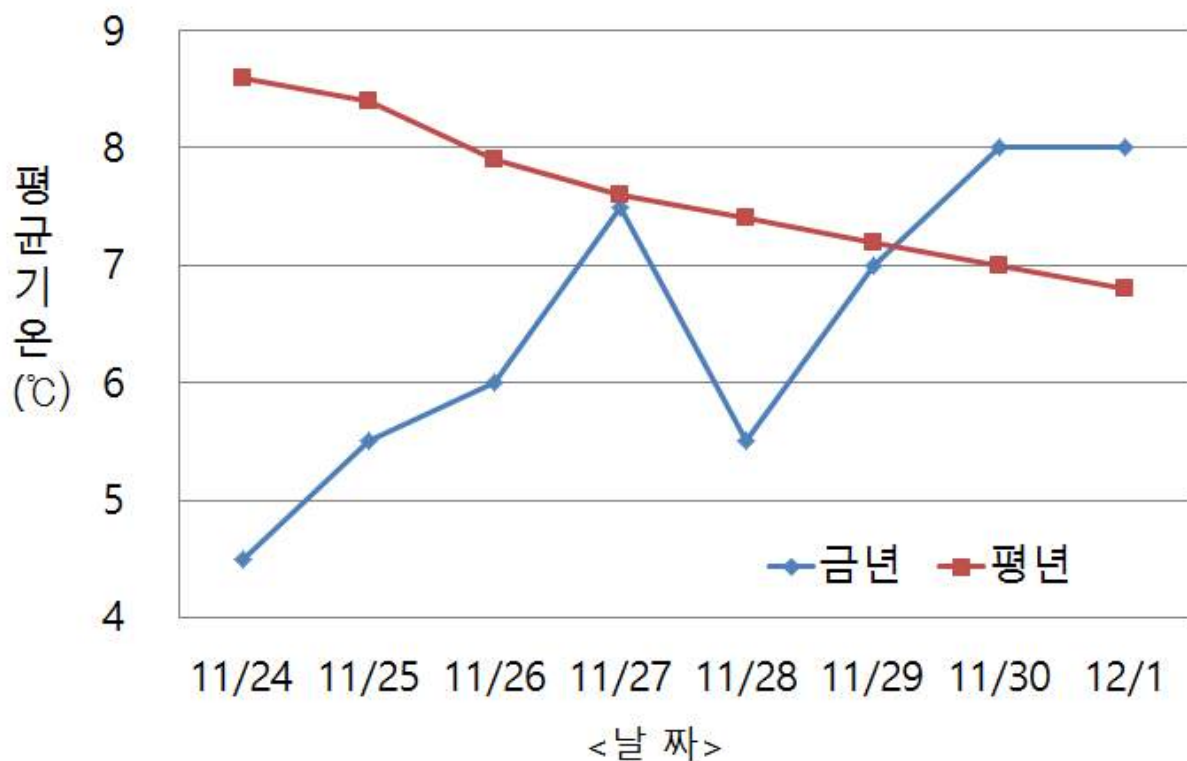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6.5	7.6	-1.1	10.4	12.5	-2.1	2.6	3.8	-1.2	1.6
11. 24.(목)	4.5	8.6	-4.1	8.0	13.9	-5.9	1.0	4.6	-3.6	1.5
11. 25.(금)	5.5	8.4	-2.9	10.0	13.4	-3.4	1.0	4.5	-3.5	1.7
11. 26.(토)	6.0	7.9	-1.9	10.0	12.9	-2.9	2.0	4.1	-2.1	1.7
11. 27.(일)	7.5	7.6	-0.1	11.0	12.4	-1.4	4.0	3.9	0.1	2.0
11. 28.(월)	5.5	7.4	-1.9	9.0	12.2	-3.2	2.0	3.7	-1.7	1.8
11. 29.(화)	7.0	7.2	-0.2	11.0	11.9	-0.9	3.0	3.5	-0.5	1.7
11. 30.(수)	8.0	7.0	1.0	12.0	11.8	0.2	4.0	3.3	0.7	1.2
12. 01.(목)	8.0	6.8	1.2	12.0	11.6	0.4	4.0	3.1	0.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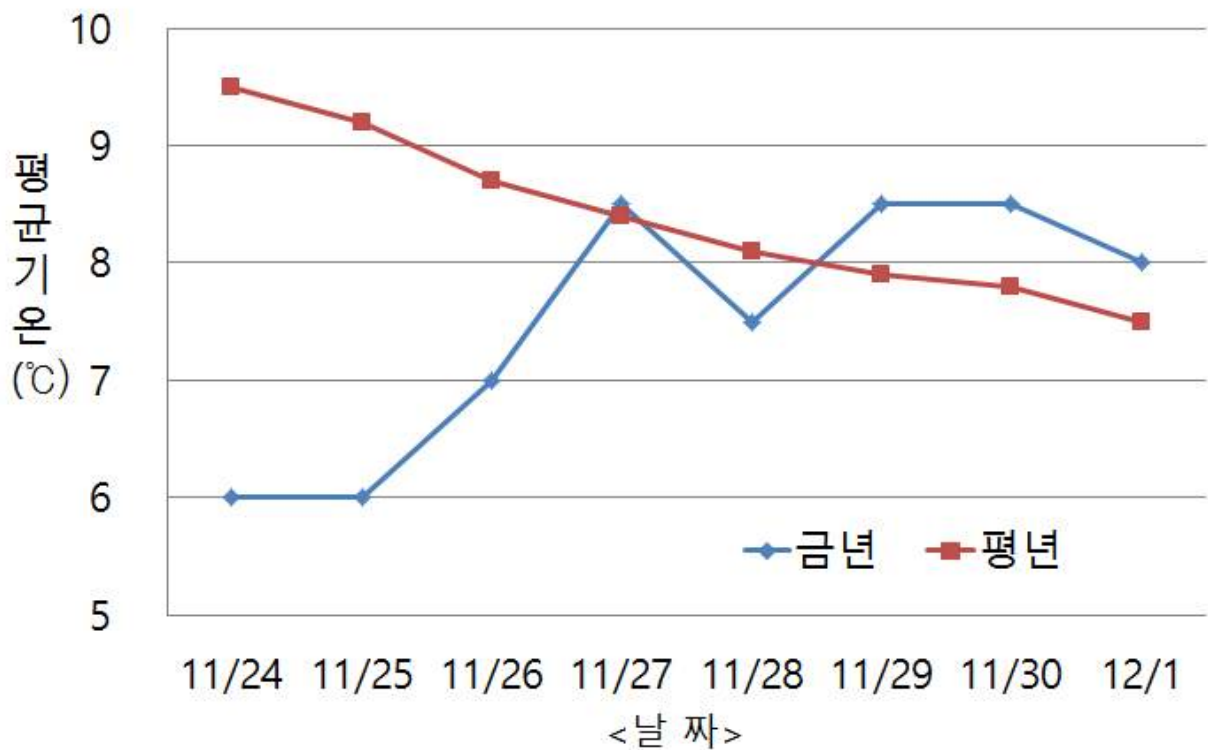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7.5	8.4	-0.9	11.1	12.2	-1.1	3.9	5.1	-1.2	1.5
11. 24.(목)	6.0	9.5	-3.5	10.0	13.3	-3.3	2.0	6.2	-4.2	1.7
11. 25.(금)	6.0	9.2	-3.2	10.0	12.9	-2.9	2.0	5.9	-3.9	1.6
11. 26.(토)	7.0	8.7	-1.7	11.0	12.5	-1.5	3.0	5.4	-2.4	1.6
11. 27.(일)	8.5	8.4	0.1	12.0	12.1	-0.1	5.0	5.1	-0.1	2.2
11. 28.(월)	7.5	8.1	-0.6	10.0	11.9	-1.9	5.0	4.9	0.1	1.4
11. 29.(화)	8.5	7.9	0.6	12.0	11.7	0.3	5.0	4.6	0.4	1.3
11. 30.(수)	8.5	7.8	0.7	12.0	11.6	0.4	5.0	4.5	0.5	1.1
12. 01.(목)	8.0	7.5	0.5	12.0	11.4	0.6	4.0	4.3	-0.3	1.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 출하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겨울배추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 가을배추 추정 생산량은 126~134만톤으로 지난해보다 7~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겨울배추 추정 생산량은 30~31만톤으로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단수는 주산지인 해남에서 잦은 강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육이 나빴던 지난해와 비슷한 8,905kg/10a으로 조사되었다.

□ 출하전망 : 김장철(11~12월) 배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11·12월 배추 출하량 지난해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11월	12월		
		가을배추	겨울배추	전체
출하면적	-2.3	-5.8	-4.3	-5.7
단 수	-6.4	-13.8	-7.7	-13.4
출하량	-8.6	-18.7	-11.7	-18.3

□ 가격전망 : 김장철(11~12월) 가격 10월보다 하락 전망

- 11월 배추 상품 1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산지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낮았던 평년(4,370원)과 지난해(4,580원)보다 높으나, 지난달(8,230원) 보다는 낮은 6,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하순에는 김장수요 증가와 해남의 작황 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상·중순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전남 해남지역의 습해, 뿌리혹병 등의 사후 관리여부나 향후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11~12월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무 생산 · 출하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무 생산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14% 적은 44만 6천톤으로 추정된다.
- 가을무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5, 18% 감소한 5,509ha로 추정된다.

□ 출하전망 : 11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15% 감소 전망

- 11월 출하량은 가을무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1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5% 감소하며, 출하단수는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12월 무 출하량 지난해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11월	12월		
		가을무	월동무	전체
출하면적	-5.2	-5	-0.4	-3.7
단 수	-10	-9.5	-8.8	-9.3
출하량	-14.7	-14	-9.1	-12.6

□ 가격전망 : 김장철 가격 10월보다 하락 전망

- 금년 가을무(다발무) 평균 포전거래가격은 7,000원/3.3m² 내외로 지난해 (3,000~4,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무 도매가격은 가을무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낮았던 지난해(8,490원)보다 높으나, 전월(25,300원)보다 낮은 14,000원/18kg 내외로 전망된다.
- 12월 무 도매가격은 가을 및 월동무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7,750원)보다 높으나, 11월보다는 하락할 전망이다.

양배추 생산 · 출하 ·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겨울양배추 생산량 지난해보다 감소

- 추정 재배면적과 단수를 적용한 가을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6% 적은 2만 1천톤으로 추정된다.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39% 감소한 6만 9천~7만 4천톤으로 추정된다.

□ 출하전망 : 11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 11월 고랭지양배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양배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12월 양배추 출하량 지난해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11월			12월		
	고랭지	가을	전체	가을	겨울	전체
출하면적	1.8	-10.1	-8.9	-12.6	-10.2	-12.3
단 수	-10.5	-18.9	-18.1	-14.2	-20.5	-14.7
출하량	-8.9	-23.9	-22.5	-24.9	-28.5	-25.3

□ 가격전망 : 11월 가격 지난해보다 높아

- 11월 양배추 상품 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3,190원)보다 높은 12,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상순까지는 10월 하순(10,390원)의 시세를 유지하다가, 중순에 만생종으로 출하가 전환되면서 출하 공백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1. 2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1)	1주일전 (11/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29,000	37,000	42,100	↓ 12.4	↓ 23.0
	콩(백태)	35kg	186,800	158,000	152,000	146,400	170,293	↑ 27.6	↑ 9.7
	고구마(밤)	10kg	24,800	25,200	25,400	21,200	21,400	↑ 17.0	↑ 15.9
	감자(수미)	20kg	30,600	28,000	25,560	25,400	24,760	↑ 20.5	↑ 23.6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1,020	740	-	490	517	↑ 108.2	↑ 97.3
	양배추	10kg	16,200	13,200	10,600	3,800	4,667	↑ 326.3	↑ 247.1
	오이(다다기계통)	10kg	19,333	24,333	17,867	30,583	29,720	↓ 36.8	↓ 34.9
	애호박	8kg	18,600	19,800	19,520	22,950	23,517	↓ 19.0	↓ 20.9
	토마토	10kg	28,800	30,200	37,240	16,650	23,933	↑ 73.0	↑ 20.3
	당근	20kg	72,600	67,400	50,000	27,150	29,450	↑ 167.4	↑ 146.5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4,000	806,000	895,333	↓ 28.0	↓ 35.2
	풋고추	10kg	66,600	74,600	47,760	34,650	43,603	↑ 92.2	↑ 52.7
	마늘(깐마늘)	20kg	148,000	144,000	140,000	138,000	110,533	↑ 7.2	↑ 33.9
	양파	20kg	21,000	20,800	19,600	32,950	20,293	↓ 36.3	↑ 3.5
	대파	1kg	2,450	2,300	2,264	1,883	1,524	↑ 30.1	↑ 60.8
	파프리카	5kg	24,200	24,000	30,200	12,950	22,147	↑ 86.9	↑ 9.3
	멜론	8kg	27,200	27,200	24,920	21,900	24,423	↑ 24.2	↑ 11.4
	방울토마토	5kg	23,000	26,200	29,840	10,100	12,987	↑ 127.7	↑ 77.1
	수박	1개	14,000	13,600	12,120	9,350	8,807	↑ 49.7	↑ 59.0
과 채 류	사과(후지)	10kg	18,113	18,400	-	20,732	21,041	↓ 12.6	↓ 13.9
	배(신고)	15kg	30,562	30,385	29,859	27,523	29,598	↑ 11.0	↑ 3.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1)	1주일전 (11/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5,600	513,600	523,040	534,000	541,400	↓ 3.4	↓ 4.8
	느타리버섯	2kg	14,600	15,000	13,280	11,300	11,847	↑ 29.2	↑ 23.2
	새송이버섯	2kg	8,800	9,200	9,560	8,300	8,340	↑ 6.0	↑ 5.5
축 산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13	8,058	7,964	7,749	6,533	↑ 0.8	↑ 19.6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09	1,996	1,986	1,886	1,703	↑ 1.2	↑ 12.1
	닭고기	1kg	5,802	5,366	6,160	5,055	5,695	↑ 14.8	↑ 1.9
	계란(특란)	30개	5,427	5,671	5,546	5,534	5,597	↓ 1.9	↓ 3.0
	우유	1리터	2,528	2,528	2,525	2,550	2,459	↓ 0.9	↑ 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1. 2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73 천원	5,499 천원	5,788 천원	↓ 0.4	↓ 5.4
	거세	6,229 "	6,272 "	6,688 "	↓ 0.6	↓ 6.8
송아지 (6~7월)	암	2,554 "	2,519 "	2,537 "	↑ 1.3	↑ 0.6
	수	3,186 "	3,188 "	3,138 "	↓ 0.1	↑ 1.5
육우(600Kg)		3,013 "	3,035 "	3,468 "	↓ 0.7	↓ 12.1
젖소수송아지(7일령)		182 "	204 "	258 "	↓ 10.7	↓ 29.4
돼지(110kg)		361 "	377 "	383 "	↓ 4.2	↓ 5.7
육계(원/kg)		1,586 원	1,505 원	1,336 원	↑ 5.3	↑ 18.7
계란(원/특란10개)		1,245 "	1,243 "	1,112 "	↑ 0.1	↑ 11.9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5145원/마리 (△242) * (5,658 - 2,332 + 3,186 = 6,512)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돌산갓 ‘알싸미·매코미’ 품종보호 출원

- 항암성분 ‘시니그린’ 함량 일본갓보다 2배 높아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특쓰는 맛이 강한 돌산갓 신품종 여수9호 ‘알싸미’와 10호 ‘매코미’를 14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했다.
-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알싸미와 매코미는 매운맛 항암성분인 ‘시니그린’ 함량이 각각 16.37, 17.69mg/g로, 일본품종인 ‘청경대엽고채(7.14mg/g)’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 품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수9호인 알싸미 품종은 잎색이 녹색으로 잎 표면에 털이 없으며 배춧잎 형태의 김장용 품종이다. 봄철 꽃이 늦게 피는 만추성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알싸한 맛이 강해 봄재배에 적합하다.
- 여수10호인 매코미는 자주색으로 잎 표면에 털이 많은 무잎 형태의 김장용, 물김치용 품종이다. 기존 품종에 비해 특 쓰는 맛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특성을 지녀 가을재배에 알맞다.
- 여수시는 우리품종 개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돌산갓연구 전담팀을 신설하고 늦동이 등 8개 품종을 육성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으며, 매년 200kg의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해 연간 2천만원의 수입종자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 시농업기술센터는 새로 출원된 신품종 종자를 내년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농가에 순차적으로 공급해 기존의 순한 맛과 차별화된 특 쓰는 맛이 강한 돌산갓김치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선 국비 8억 6천만원 확보

- 선별기 및 장비 교체 통해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작업시스템 추진 -

- 나주시는 국비 8억 6천만원을 확보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의 개보수 작업을 추진, 선별기 교체 등을 통해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작업 시스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는 통합조직인 나주거점 APC와 참여조직인 마한농협 APC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6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선별기 및 장비 교체를 통해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배 선별 시 원물손상 발생과 함께 포장 단계에서 빈번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작업 시스템을 마련하여 나주배 품질 향상과 함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국비를 꾸준히 확보하여 나주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처리시설로, 나주시 관내에는 통합조직인 거점 APC를 포함하여 총 25개 APC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배·멜론·양파·참외 등을 취급하고 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매실정책 기초자료 매실 생산량 통계조사 실시

- 11. 30.까지 매실농가 4,473호, 1,736ha 대상으로 진행 -
- 광양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16 광양매실 생산량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광양시 매실농가 4,473호, 1,736ha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조사에서 누락됐던 농가도 확인해 추가로 실시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유통방법, 품종별 주수 등이며, 조사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직접 해당 농가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추진한다.
- 광양매실 생산량 통계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매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다.
- 생산량, 재배면적, 유통현황 등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광양매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실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
- 최연송 매실정책팀은 “시는 사전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펼치는 등 매실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통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실 재배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광양시





■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 사용 승인

- 보성군 농특산물 34개 업체 82개 품목에 대해 공동브랜드 ‘미미보 (味美寶)’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 사용 승인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 이날 심의회에서는 영농경력, 품질관리열의도 등 13여개 항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충족한 총 34개 업체에 대해 ‘미미보’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 앞으로 82개 품목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 군에 따르면 보성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된 공동브랜드가 없어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홍보에 미흡했으나, ‘미미보’ 사용승인을 통해 보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청정 이미지 제고와 가치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 한편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는 청정보성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우수 농·특산물에 한해 보성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브랜드로써 미미보(味美寶) bi(brand identity) 4종 16건에 대하여 지난 9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 출처 : 보성군



장흥군, 2016년 농촌자원분야 경진심사서 최우수상 수상

- 장흥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16년도 농촌자원 분야 경진심사에서 6차산업 성과확산 우수기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8일 열린 농촌자원분야 경진심사에서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을 앞세워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장흥은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푸드 스토리를 발굴하고, 고유의 제조·보존방법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청태전의 우수성은 세계녹차 콘테스트 최고 금상(2008, 2014), 세계녹차 콘테스트 금상(2011, 2015), 맛의 방주(Art of Taste) 등재(2013), 프레지디아(Presidia) 선정(2014) 등 다양한 수상 실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군은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17명으로 구성된 6차산업 추진 협의체를 만들고 추진협의회를 올해에만 수차례 개최했다. 버섯 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태전 발효관련 경영체 및 연구회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시상식은 오는 2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장흥군은 최우수상에 따른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 제해신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광, 전통차, 우리쌀 활용식품 등 6차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분야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민의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강진군, ‘강진한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강진한우’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강진군 한우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31일 특허청에 ‘강진한우’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한 이후 특허청의 자료 검토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번호 44-00000372)’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 강진군은 공장이 없어 국내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충분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100%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해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갖췄다.
- 여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주를 이용한 발효사료 첨가제를 급여하여 육질을 특화하려는 노력과 전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혈통우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시·군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은 편이며 해마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 등 한우산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획득했다. 여주 발효사료 첨가제에 사용하는 강진여주 또한 지난 9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획득한 강진의 또 다른 특산품이다.
- 특히, 강진군은 농업이 주 소득원이지만 향후 농업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한우산업이라는 판단하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강진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 유통센터와 3개소의 조사료 전문단지 유치, 한우개량사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등 한우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함평군, 조사료 수급 안정대책 추진

- 동계작물 보충파종 보조율 상향, 벧짚비닐지원 확대로 생산량 확보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조사료 수급부족이 우려돼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벧짚 수거량은 전년의 20~30%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종시기에 내린 잦은 비로 동계작물의 생육이 저조해 내년 조사료 생산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이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경종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긴급회의를 갖고 벧짚 수급 안정과 동계작물 파종 독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동계작물 파종면적 중 생육이 불량한 곳은 보충 파종을 하도록 유도해 생산량을 최대로 확보할 예정이다.
- 특히 보충 파종에 따른 동계작물 종자(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확보를 위해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 또한 벧짚비닐지원 사업량을 당초 990롤에서 2,800롤로 확대해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벧짚을 생산하도록 돕고, 1롤당 곤포사일리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한다.
- 채대섭 축수산과장은 “현재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동계 사료작물 파종을 독려하는 한편, 배토기와 진압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도 조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함평군



■ 장성군, 베트남 “농식품산업 교류 물꼬 텃다”

- 장성군은 지난 16일 베트남 농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장성지역의 식품 가공업체들과의 교류 넓히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장성을 찾았고 전하며, 17일 장성군청에서 베트남 중소기업지원기관인 SMEDEC2와 장성군이 양 국가의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농산물 원물생산과 제조·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체 간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정보나 관리 기술 등을 공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 베트남 중소기업지원기관 SMEDEC2와 식품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은 장성군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장성군이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지역의 가공·유통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박 3일 일정으로 장성을 찾은 베트남 관계자들은 업무협약에 앞서 삼계농협과 한마음공동체를 찾아 농산물 유통시설을 둘러보며 자국과 다른 산업 환경에 큰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 협약 체결을 마친 후에는 워크숍에 참여해 양국의 기업현황과 생산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며 상호 이해를 넓혔으며 양국의 농산업 식품 발전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실질적 방안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워크숍에는 양국의 문화를 잘 아는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해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 출처 : 장성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 ‘해금골드키위’, 30톤 일본에 첫 수출

- 지난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린키위에 이어 순천 해금골드키위가 올해 처음 일본 수출 길에 올랐다.
- 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순천 APC(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승주소재)에서 해금골드키위 30톤이 일본 첫 수출 길에 올라 1억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의 해금골드키위는 현재 18농가에서 6.1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린키위(헤이워드)보다 소득이 높아 재배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해금은 2007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 품종으로 외국산인 제스프리에 비해 재배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없고, 당도는 더 높으며 신맛이 적어 품종 선호도가 높고 시장성도 매우 밝다.
- 이와 함께 순천 APC는 순천을 비롯해 광양·보성·장흥·해남·고흥군의 골드키위 70톤을 추가로 선별해 수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순천의 안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한국 농식품,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연계 수출 상생 협력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 16.(수) 현대그린푸드 본사에서 중국·중남미·중동에 진출한 (주)현대그린푸드의 외식 식자재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현대그린푸드사(대표이사 오홍용, 이하 현대그린푸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 현대그린푸드는 업체 최초 중동(UAE·쿠웨이트), 중남미 급식 시장 진출을 통해, 건설현장 급식 서비스, 외국근로자를 위한 나라별 종교별 메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중국 급식 운영을 통해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VIP 연회, 현지 맞춤 한식 제공 등 다양한 글로벌 메뉴로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의 MOU를 계기로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 외식체인·급식 식자재 시장에 판매 가능한 농식품을 적극 발굴해 수출로 연결할 계획이며, 현대그린푸드와의 상생협력 첫 번째 사업으로 대중국 삼계탕 저변 확대를 위해, 현대그린푸드 중국 내 2개의 법인(북경·산둥)과 연계 중국내 3만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계탕 특별식’을 오는 11. 23.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금번 농식품부와 현대그린푸드간 MOU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현대그린푸드와 협의하여 중국·중남미·중동에 수출 가능한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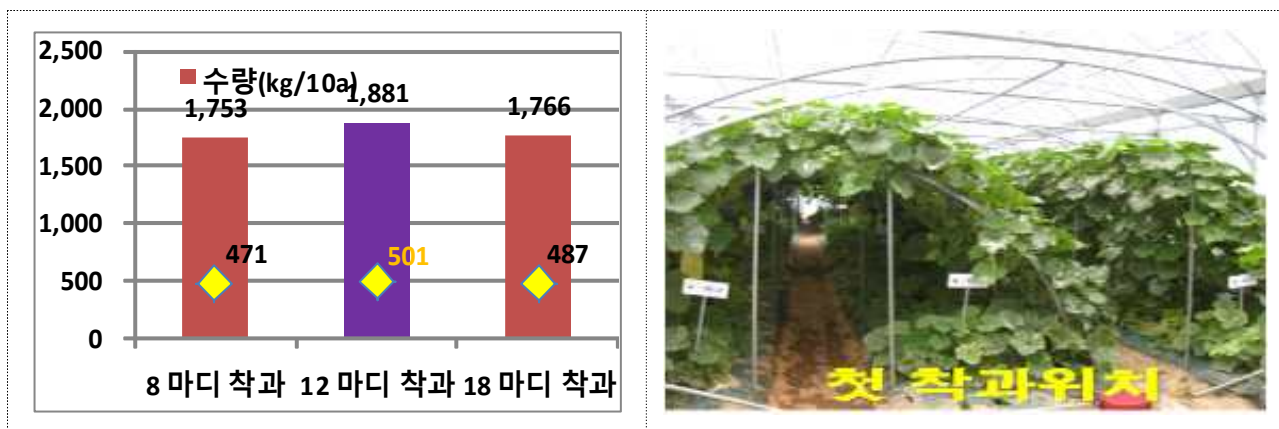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단호박 반축성 무가온재배 첫 착과위치 설정

□ 개발기술 내용

- 첫 착과위치는 12마디로 하면 과일의 무게가 증가하고 수량이 많아짐
 - 과 품질은 12마디 착과가 과중이 501g으로 무겁고 과폭이 102mm로 넓었음
 - 수량은 12마디 착과가 1,881kg/10a로 관행보다 10a당 128kg이 많았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단호박 교재작성 및 영농교육 교재 활용
- 단호박 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재배 단지조성 : 5ha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단호박 무가온재배 첫 착과위치 설정(영농)
 - 수량 7%증 : 12마디 착과 1,881kg/10a 관행 유인 1,753kg
 - ⇒ 494천원/1,000m²/년 추가 소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나택상, 손동모

■ 자생쭈 향료소재를 이용한 석고방향제 제조방법

□ 개발기술 내용

- 빠르고 효율적 석고방향제 제작을 위한 석고, 물 적정비율 개발
 - 석고 총용량의 40% 물 혼합으로 용기에 석고 묻음이 적고 굳힘 시간 단축 및 단단한 석고제형 완성
- 석고방향제의 강한 발향을 위한 경제성 있는 적정 향료 첨가량은 9%임

수상층	향첨가량 (%)	방향성 품질평가						방향성 종합평가
		향기호도	향확산성	향확산거리	향지속성	피부자극성	총점	
 【석고방향제】	0	1	1	0	0	5	7	향이 없음
	3	3	3	1	2	5	17	향기보통
	6	5	5	4	4	5	29	매우강한 향기
	9	5	5	5	5	5	34	매우 강한 향기
하이드로졸	0	3	1	0	1	5	10	향기미약(쭈냄새)
	3	4	5	4	4	5	25	매우강한 향기
	6	4	5	4	4	5	28	매우강한 향기
	9	4	5	5	5	5	33	매우강한 향기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쭈 자원을 이용한 석고방향제 생산기술을 원하는 지역에 보급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 지원 할 계획임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쭈은 봄철 국거리용이나 쭈떡 재료 등 소규모 단순이용으로 활용율이 낮아 소득이 저조하였으나 쭈의 공기정화 및 소취력 효능을 이용한 방향제품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 지역 쭈 자원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석고방향제를 직접 제작 생산 판매할 경우 1인 1일 300개 제작 시 순수익은 85만으로 고소득 가능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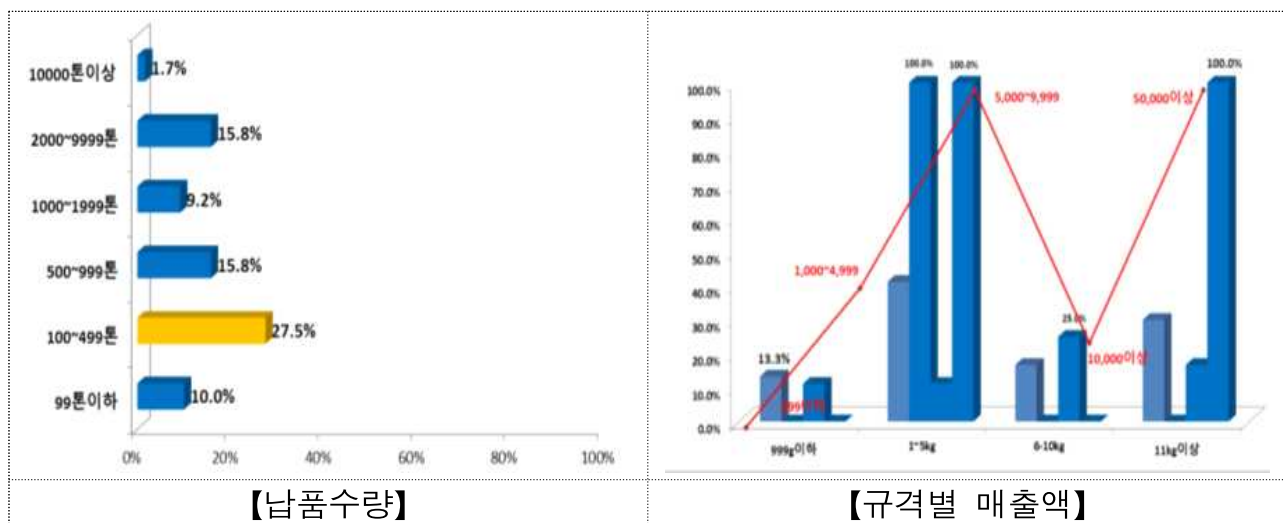
■ 대형마트 PB사과 거래량 및 포장재 규격별 매출액 비교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비지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하와 품질 차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PB농식품 확대
- 대형마트 PB농식품 거래량 및 포장재 규격별 매출액 비교 자료 미흡

□ 개발기술 내용

- 대형마트 PB사과 거래량 규모는 100~499톤이 27.5%로 가장 많음
- 포장지 규격별 매출액은 1~5kg에 1,000~4,999백만원 41.2%로 가장 많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대형마트 PB농식품 거래 및 포장재 규격별 매출액 관한 정보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대형마트 PB농식품 거래량 및 포장재 규격별 매출액 비교 분석제공으로 출하시장 대응능력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황인택

■ 국산 홍차 색·향·맛 향상 적정 혼합방법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산 차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차 종류 개발 및 음용 방법 개선
- 최근 차 생산농가 및 소비자 요구로 홍차 제품 선호도 증가로 품질 고급화

□ 개발기술 내용

- 봄, 여름, 가을 찻잎이용 실내에서 2~3시간 상온발효 방법
 - 홍차 제조과정 : 찻잎 → 시들리기 → 비비기 → 상온발효 → 건조
 - 실내온도 25~30℃, 찻잎 두께 10cm정도, 발효시간 120~180분
 - 홍차 제품 다양화를 위한 적정 혼합방법
 - 봄홍차 +여름, 가을홍차 10~20% 혼합, 찻물색, 향기, 맛 기호성 향상



【실내 상온발효 및 혼합 홍차 제조】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연중 봄, 여름, 가을 홍차 제조기술 농가기술 교육 및 제품 다양화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연중 홍차 제품 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수입 발효차 200억 대응
- 국산홍차의 품질 고급화 및 다양화로 차 생산농가 소득 50% 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 전남 특화작목 강황, 유기재배 기술 개발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3년에 걸쳐 개발한 강황 유기재배 안전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황은 항암, 간기능 회복, 치매예방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최근 건강 식품원료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유기 강황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강황을 심는 시기는 남부 해안지역인 진도지역에서는 4월 중순, 중부지역인 곡성지역에서는 4월 하순이 적합하며, 수확은 11월 상순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강황에 함유된 기능성분인 커큐민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10a에 심을 강황 종구는 3,700주 정도가 알맞으며, 시비량도 생강의 2배 정도일 때 수확량이 높다고 한다. 또한, 상품가치가 없어 버리는 근경과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는 잔뿌리는 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막는 커큐민과 그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어서, 작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다음해 사용할 종구는 상온에서 황토에 저장하는 것이 부패도 막고 생산량도 좋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신길호 연구사는 앞으로 강황 안전 생산을 위한 유기재배 안정생산 기술 매뉴얼을 제작하여 도내 유기농 강황 재배단지 규모화로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도 토종약초 '우슬' 건조 및 저장방법 개발 보급

- 열풍 건조기 45℃ 건조, PE 포장지 저온저장 시 품질양호로 소득증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 토종 약초인 “우슬”의 건조·저장과정 중에 뿌리가 갈변으로 변질되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확 후 건조, 저장방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주로 신경통 한약제로 이용되는 우슬은 뿌리의 색택에 따라 상품의 가격차이가 크며 시중에 장기간 유통되기 때문에 수확 후 건조방법과 저장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도내 재배농가 대부분은 생체뿌리로 생약재 수집상에게 판매하거나 장시간 소요되는 자연건조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 소득이 낮은 실정이다.
- 이번에 전남농기원에서 개발한 우슬 뿌리 건조방법은 세척한 뿌리를 45℃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1차로 뿌리 수분함량이 85~90%까지 예건하고 45℃ 조건에서 5cm 정도로 얇게 펴서 수분함량이 14~15%까지 2차 건조하면 손실율도 8~12% 정도 낮추고 뿌리의 색도가 매우 좋았으며 약효성분인 엑디스테로이드 함량이 1.5배 높아 품질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 또한 저장방법은 상온저장보다 저온(5℃) 조건에서 PE(폴리에틸렌) 포장지로 6개월 정도 저장하더라도 부패율을 5% 정도 줄일 수 있어 고품질 생약재 생산은 물론 10a당 농가소득도 8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슬은 우리 도 장흥·화순·강진지역에서 18ha로 재배되고 국산 수요량의 72%만 조달하고 있지만 생약재 250톤을 수입하고 있다. 뿌리에 들어있는 사포닌, 엑디스테로이드가 진통, 항염증,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어 신경통 예방으로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약재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박사는 토종 약초의 보급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외화 절약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도내 10대 약초에 대해 농산물우수 관리인증(GAP)을 도입한 표준재배기술과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 매뉴얼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무경운 직파재배기술로 생력화·탄소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벼 무경운 건답직파 재배효과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노동력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낮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벼 무경운 직파재배기술을 소개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3년간 무경운 건답직파 재배기술의 노동력 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평가했다.
- 무경운 건답직파는 모내기를 하지 않고 마른 논에 파종골을 내서 볍씨를 뿌리는 재배방법으로, 본답 준비에 필요한 경운 및 정지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 벼 무경운 건답직파는 10a당 노동력 투입이 3.16시간 감소돼 경운 기계이앙 대비 27%, 무경운 기계이앙 대비 20%를 줄일 수 있다.
- 또한, 벼를 무경운 직파 재배함으로써 경운 기계이앙 대비 메탄 발생량을 7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무경운으로 벼 재배 시 수확량은 경운 기계이앙 대비 98.5% 수준으로 비슷했다.
- 미국에서는 농경지의 23% 정도를 무경운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약 75% 이상이 무경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 국립식량과학원 허성기 재배환경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노동력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 무경운 재배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달콤함에 기능성을 더한 새 품종 고구마 소비자 입맛 잡아

- 풍원미·호감미 당도 높고 재배안정성 뛰어나... 소비자·농가 모두 선호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눈 건강과 항암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β -carotene)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고구마 새 품종 '풍원미'와 '호감미'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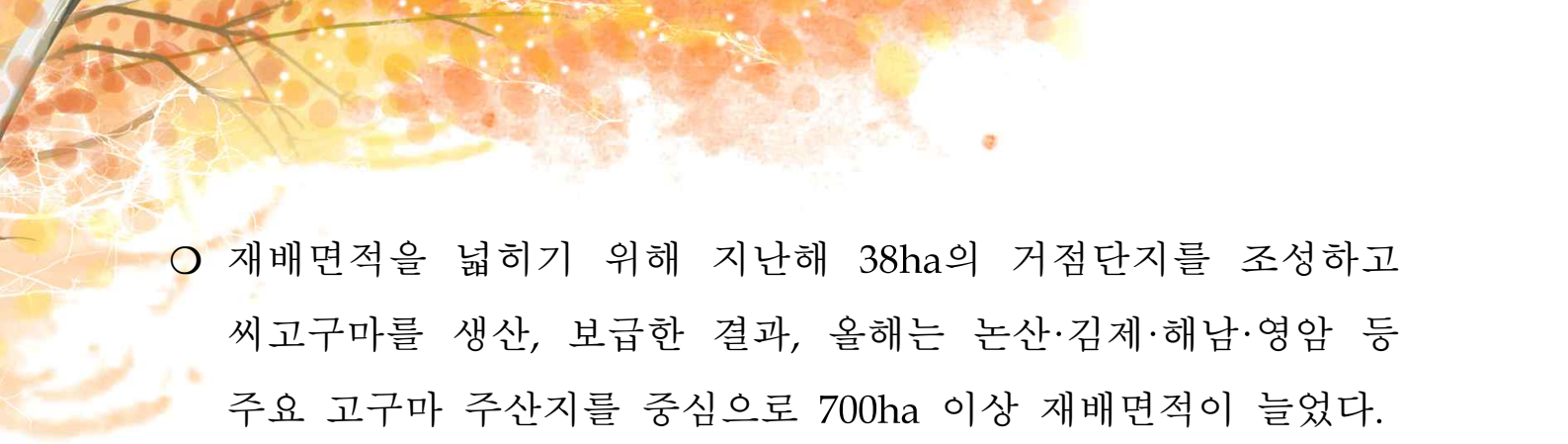


▲ 풍원미



▲ 호감미

- 최근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면적은 20천ha 전·후로 안정화 추세이며, 다른 밭작물에 비해 농가소득이 높아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 '풍원미'와 '호감미'는 당도와 수량성이 높고 기능성이 풍부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에 적합한 품종이다.
- 두 고구마는 육색이 담주황색이며, 육질은 밤고구마와 물고구마의 중간 정도로 식감이 좋다.
- 수량은 10a당 2.4톤 정도로 많고, 덩굴쪼김병과 뿌리혹선충에 강해 재배안전성이 높다.
- '풍원미'는 4월 상순 저온기에 심어도 생육이 좋고, 덩이뿌리가 빨리 커져 8월 햇고구마 출하를 위한 조기재배용으로 알맞다.

- 
-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38ha의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씨고구마를 생산, 보급한 결과, 올해는 논산·김제·해남·영암 등 주요 고구마 주산지를 중심으로 700ha 이상 재배면적이 늘었다.
 - ‘풍원미’ 재배농가는 8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해 전국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 특히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서는 최초로 품종이름을 넣어 유통하고 있으며, 경매가격도 외래품종에 비해 10~30% 이상 유지하고 있어 재배농가의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다.
 - ‘호감미’는 생육일수가 130일 정도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저장이 용이해 이듬해 6월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 농가보급용 씨고구마 생산 및 농가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여주 등 8지역에 4.5ha 정도의 거점단지를 조성·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씨고구마 무병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 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아울러 고구마 소비 촉진을 위해 새 품종을 시식하면서 우수성과 영양적 가치, 가공 제품 등 다양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특별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토양 속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정밀 진단 키트 개발

- 인삼 재배 최적지 선정에 활용...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연작장해의 원인균인 ‘인삼뿌리썩음병원균’의 토양 내 밀도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인삼 재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토양전염병인 인삼뿌리썩음병은 연작(이어짓기) 장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뿌리썩음병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작지(인삼을 재배했던 토양)뿐만 아니라 초작지(처음 재배하는 토양)에서도 발생하는 등 인삼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된다.
- 농촌진흥청 인삼과는 인삼 재배지 또는 예정지 토양에서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뿌리썩음병원균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균학적 특성을 연구해 특이적인 ‘분자마커’를 개발했다. 또 이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라디시콜 선택배지’를 개발해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진단키트는 기존의 진단방법보다 정밀도가 100배 정도 높아서 인삼 재배지나 예정지 토양에 병원균의 감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진단 시간은 4~5일 정도 걸린다.
- 토양 1g당 인삼뿌리썩음병원균 포자 10개 내외로 밀도판별이 가능하다.
- 이 기술은 관련 업체로 이전해 지역 인삼 연구기관과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돼지, 겨울에 맞는 사료급여와 환경관리 필요

- 새끼는 보온등이나 보온상자 설치... 임신한 돼지는 사료 양 늘려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을 맞아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돼지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겨울철 어미돼지는 추위 스트레스 번식능력이 떨어지고, 새끼돼지는 면역기능이 낮아져 돼지유행성설사나 돼지호흡기질병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 바람이 새 들어오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털이 거칠어지고 성장이 늦어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 때문에 축사의 틈새는 막고 적정 풍속으로 환기하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 먼저, 젖을 먹이는 어미(포유모돈)는 사육온도를 16~21℃에 맞추고, 외부온도 변화에 민감한 새끼(포유자돈)은 보온등이나 보온상자를 설치, 30~35℃를 유지하면서 잘 자라도록 한다.
- 젖 땠 새끼(이유자돈)의 젖을 땠 때는 추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하고, 운반용 상자로 이동한다.
- 새 우리에 넣기(입식) 전에는 방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한다.
- 임신한 돼지(임신모돈)는 사료섭취량이 줄면 체조직 손실이 늘어 번식성적이 낮아지므로 적정 온도보다 1℃ 내려갈 때마다 권장 사료급여량에서 1%(약 20~25g)씩 양을 늘려 급여한다.

- 육성·비육돈은 하루 내 온도변화가 8℃를 넘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실내온도는 18~20℃ 수준에서 온도편차를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
- 또한, 겨울철은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 방역과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소독약은 얼지 않도록 상온에서 관리하고, 내부 소독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때 적정 배율로 희석해 사용한다.
-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미생물과 박테리아 번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히 환기를 해야 한다.
 - 유해가스 농도는 암모니아는 15, 황화수소는 5ppm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온풍기, 보온등, 보온상자 등 온열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누전차단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전력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정용량을 확인해 화재를 미리 예방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바이오차·돈분 이용 펠릿형 완효성 비료 개발

- 생육촉진·비료절감·온실가스감축 '1석 3조' 효과 기대 -

- 작물은 쑥쑥 키우고 비료는 덜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료가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비해 바이오차(Biochar) 돈분을 이용한 펠릿형 완효성 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비료는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차(Biochar)와 돈분 퇴비, 그리고 비료 성분을 혼합해 펠릿 형태로 만든 것이며, 토양에서 천천히 녹아 오랫동안 비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완효성 비료이다.
- 이 비료를 농경지에 뿌리면 작물 생육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 규산은 약 70일 정도, 칼륨은 약 30일 정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 이에 따라 기존에 비료와 퇴비를 각각 주는 방식에서 비료와 퇴비를 한 번에 줄 수 있어 30% 정도의 비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농가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다.
- 작물 생육 촉진 효과도 커서 온실 내 포트에 심은 고추와 상추를 대상으로 수확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방법보다 고추는 29, 상추는 10% 정도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차를 펠릿 형태로 농경지에 뿌림으로써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고, 바이오차가 일정량의 질소를 흡착해 농경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농가카페 매니저

□ 어떤 일을 하나요?

- 농가카페 매니저는 서비스나 음식에 대한 손님들의 주문과 불만을 직접 해결하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며, 매장 운영 고객,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 매장의 전반적인 실무를 수행합니다.
- 매니저는 카페에 1명이 필요하지만 매니저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면 카페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농촌지역에 유기농 카페 및 레스토랑, 직매장과 연계한 레스토랑, 농가 레스토랑 등 6차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다양한 형태의 카페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6차 산업 창업 가이드북을 아세요?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6차산업과 관련된 정책, 매뉴얼, 성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6차산업.com/portal/main.do>)

배우고	도전하고	소통하면	성공하는 6차산업
6차산업 소개 6차산업 개념과 정보 안내 바로가기 >	예비농업인의 도전기 예비농업인의 도전기 영상 바로가기 >	6차산업 자문단 상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FAQ 각 분야별 자주찾는 질문과 답변 칼럼 전문가의 6차산업 이야기	경진대회 수상사례 6차산업 경진대회 수상작 30선 소개 가공 6차산업 X파일 융합 6차산업 X파일 유통 6차산업 X파일 체험 6차산업 X파일
6차산업 지원정책 사업자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정책 안내 바로가기 >	성공하는 비법 예비농업인의 성공하는 비법 영상 바로가기 >	공지사항 자료실 자유게시판 자식나눔 대답하기	
창업 가이드 북 창업에 도전하는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바로가기 >	5월의 6차산업인 DMZplus 이동훈대표 	2016 농식품 파워브랜드 공모 2016 여성농업인(농부)에게 좋은 이쁜농산물 생산 우수 안내 [보도자료] "맛있는 국자상 호우"와 "마늘배출" 대비책 2016년 우수농업인(농부) 작품분야 지원계획 공고 2016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 안내 2016 농수산식품 창업 컨대스프 안내	2016-06-13 2016-06-13 2016-06-13 2016-06-10 2016-06-09 2016-06-09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농업총조사 결과 농가식당 경영자는 2005년 5,174, 2010년 9,043, 2014년 11,5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분	가 공	음 식	유 통	관 광
개별 농가	서산 참샘골호박농원 제주 청정원 양평 다물한과	안동 화련 서산 소박한 밥상 공주 미마지	봉화 파머스마켓 홍성 풀무우유&평촌목장 남원 안터원 목장	여주 은아목장 형성 에덴양봉원 영동 사토미소
법인 단체	평택 미듬영농조합 보령 돼지마블로즈 영주 미소머금고	함양 상림영농조합 옥연가 당진 신평 양조장 세종 뒤옹박고을	파주 장단콩연구회 언니네 텃밭 김포 엘리트농부	예산 사과와인 제주 굴림성 원주 돼지문화원
마을	양양 송천떡마을 서천 달고개모시마을 횡성 금나루무지개마을	남원 흥부밥상 삼례 비비정마을 진도 윤림예술촌	상주 송곡마을꾸러미 안동 삼배마을유통 파인토피아 봉화꾸러미	아산 외암민속마을 창원 감미로운마을 단양 한드미마을
시군	김포 인삼쌀맥주 문경 오미자 고창 복분자	제천 약채락 문경 산채비빔밥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고창 황토배기유통 진안 로컬푸드사업단	양평 농촌나드리 화진 산천어축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 농가카페 매니저는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리, 식품 영양, 외식경영, 푸드스타일리스트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 일반 대학교 기준으로 식품·조리 계열에 조리·식품영양·외식경영 전공 등 학과가 포함되어 있고 2015년 기준 전국 643개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구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산업대학	식품영양학	13	0	15	28
전문대	가정관리			7	7
	식품조리		9	311	320
대학	가정관리학	19	0	23	42
	식품영양학	64	0	182	246
합계		96	9	538	64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수탈아 피해 벼 모두 매입해 시장격리

- 전남도, 농식품부 건의 결과 반영돼 연내 매입기로 -

- 전남도는 올해 이상 기온 등으로 발생한 수탈아 피해 벼 모두를 시장격리곡 잠정등외(AB 등급)품으로 연내 매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잠정등외품 가격(40kg)은 A등급 2만 5천 510원, B등급 1만 7천 10원이다.
- 최근 연이은 풍작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수탈아 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피해 벼 모두를 매입해주도록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 이번 시장격리 매입량은 잠정 물량에 이어 실 수확량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정부에서 수요 초과량에 대한 잔여물량을 추가 배정하면서 이뤄졌다.
- 수탈아 피해 벼 매입은 시·군 자체에서 농관원, 농협 등과 일정을 조정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미곡과 별도 구분해 비축 관리해야 한다.
-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적기 매입 추진은 물론 수탈아 피해농가의 배정 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2016년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1월 17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년 2회 지급된다.
-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793,711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농가수 1,087천호의 72.9%가 해당된다. 이는 전년도 보다 15천명(약1.2%)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귀농인 등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을 완화한 결과이다.
 - * (이전) 1만㎡ 이상 농지, 2년 이상 경작, 판매 농산물 900만원
 - (이후) 1천㎡ 이상 농지, 3년 중 1년 이상 경작, 판매농산물 120만원
- 대상면적은 '15년 전체 논면적 908천ha의 92.2%인 837천ha로 전년도 844천ha에 비해 7천ha(약 0.8%)가 감소하였다. 감소원인은 4월까지 신청된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점검, 농지이행점검 및 농외소득 확인 등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된 농지(폐경지, 잡초 미제거 등)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직불금은 시·도에 자금이 배정된 17일 이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계좌에 입금되며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된다.
-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감소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모바일로 여는 상생협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주식회사 카카오(대표 임지훈, 이하 카카오)와 'IT기반 농업농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IT연계 농식품 新유통경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업무협약은 정보통신(IT)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카카오의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업계는 판로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는 농식품 콘텐츠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협약서는 △온라인 로컬푸드 직거래 운영모델 구축, △카카오 역량을 활용한 농식품 판로확대 지원 및 홍보, △기타 IT기반 농업·농촌 관련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농식품부와 카카오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쌀 등 우수 농산물과 중소기업 농식품 등에 대한 다양한 판로확대 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카카오파머·카카오톡 및 다음앱 등을 통한 농식품 소비 공동 마케팅 등을 협력할 예정이며, 그 첫걸음으로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과 IT기술이 융합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국내 농식품 소비가 활성화 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카카오파머 제주 사례와 같이 카카오도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농식품 산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 생산·포장·마케팅·검역까지 쌀 수출 길잡이 발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대중국 쌀 수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용 쌀 생산부터 중국시장 내 쌀 유통방법까지 쌀 수출을 위한 정보를 소개한 ‘대중국 쌀 수출 길잡이’를 발간했다.
- 우리 쌀 수출은 2007년 18나라 566톤을 시작으로 2009년 37나라 4,495톤을 수출한 바 있다.
- 중국과는 6년간의 협상 끝에 2016년 1월 처음으로 쌀 수출을 시작해 상해·북경·심천·광저우 등으로 330톤을 수출했다. 올해 안에 500톤 이상의 추가 수출계약이 진행 중이다.
-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최대 쌀 수입국으로 2014년 256만 톤의 쌀을 수입했다.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쌀 수요 증가로 이어져 앞으로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통관준비, 수입신고, 통관검역, 관세납부, 통관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수출부터 매장 납품에 이르기까지 통상 40~60일 가량 소요되고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의 빠른 검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각 항목마다 요구되는 서류, 통관 소요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 가정용은 1, 2, 2.5, 3, 5, 10kg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며, 5kg 이상은 포장재에 손잡이를 갖추면 좋다.
- 외식업체, 기업식당 등 대량 소비처에서는 20, 25kg 단위로 유통하며 근거리 판매점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는 2, 5, 10kg 단위로 판매되며 포장에 대해 소비자들 반응이 민감하다.
- 수확 후 관리로 검역병해충인 ‘곡식수시렁이’ 등과 같은 해충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이 필수이며, 중국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사용 지침에 따라 농약사용 시기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식량과학원은 위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한 ‘대중국 쌀 수출 길잡이’를 중국으로 쌀을 수출하고 있는 RPC(미국 종합처리장)와 앞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수출 쌀 생산단지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 책자를 원하는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이광원 연구관, 063-238-5245)를 통해 상담과 함께 배부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보경 과장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쌀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 쌀 생산단지, 수출 미국종합처리장과 관계자들은 수출 시에 필요한 통관 및 관련 절차 등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국산젓소 유전자원 3년 연속 수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지난 11월 15일 젓소 정액과 성감별 수정란을 우간다에 수출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지역에 국산 젓소 유전자원을 3년 연속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와 함께 3년에 걸쳐 동아프리카에 총 11천개(약 26백만원)의 젓소정액을 수출하였고, 올해에는 성감별 젓소 수정란(약 28백만원, 250개)까지 수출하게 되었다.
- 이번 수출은 농림분야 ODA사업(우간다 낙농개발사업, '14-'15)과 연계했던 이전의 수출과는 달리 우간다 현지 낙농가들의 구매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농식품부와 젓소개량사업소는 민간차원의 수요확대를 위해 현지 낙농가 컨설팅, 인공수정 교육, 공무원·농가 초청 등을 통해 국산 젓소 유전자원 및 낙농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 우간다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지역(케냐·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은 넓은 국토면적, 풍부한 강수량과 쾌적한 기후 및 풍부한 인구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빠른 경제성장(연평균 5~7%)으로 우유소비 시장의 확대와 낙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이 지역은 최근 자국 젓소들(약 24백만두)의 낮은 우유생산성(1~2kg/일)을 개량하기 위해 우수 유전자원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국산 젓소유전자원(32kg/일, 세계 3위)의 수출 시장으로써 가치가 크다.
- 동아프리카지역 외에도 국산 젓소 유전자원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해 민간차원의 협의를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젓소정액(3천개)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세네갈 축산연구 협력 방안 논의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국립축산과학원은 15일 본원(전북 완주)에 마마두 은자이(Mamadou Ndiaye) 주한 세네갈 대사가 방문해 두 나라의 축산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한국과 세네갈 사이의 축산연구 협력을 위해 주한 세네갈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주한 세네갈 대사에게 우리나라 축산물 활용 및 사양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생명환경부 연구현장을 안내하고 축산업 기술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다.
- 아프리카 서북부에 자리한 세네갈은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 지역 농업과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이하 KAFACI) 회원나라 중 하나이다.
- 아프리카의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약 70%의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축산업발전을 위해 세네갈을 비롯한 15 나라에서 KAFACI 축산 프로그램 ‘상업화를 지향하는 소농들의 양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역 적응 사양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지 병아리 부화와 육성 및 백신접종 교육을 통해 소규모 양계단지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부터 시작한다.
- 마마두 은자이 주한 세네갈 대사는 “KAFACI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세네갈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축산기술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1. 21.(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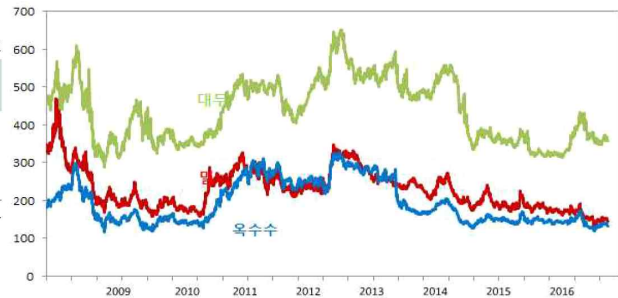
파종량 감소에 대한 우려 및 남부 평원지대의 건조기후로 인해 밀 선물 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1.21)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0)	2015 평균
밀	152.26	▲1.6%	150	186
옥수수	137.63	▲1.2%	138	148
대두	374.85	▲2.7%	359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월물) 경산가격임.

단위: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환매수세를 포함한 기술적 매수세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미국 밀 파종량 감소에 대한 우려 및 남부 평원지대의 건조기후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USD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주 밀 429,770톤을 수출하였음. USDA의 주간 수확 보고에 앞서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겨울 밀의 58%가 Good/Excellent 등급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 강세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및 환매수세로 인해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환매수세로 인해 3세션 연속 상승하였음. 수확이 마무리되며 농부들의 판매속도가 느려진 것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4.25센트 상승한 \$3.49에 마감하였으며 이는 지난 11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USD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은 875,976톤의 옥수수를 수출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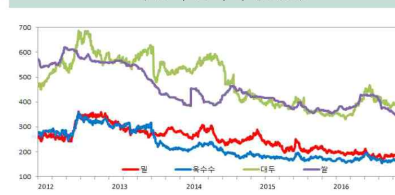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아시아 유지작물 시장의 강세에 따라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원유시장의 강세와 중국 대두 시장 강세에 따른 주간 수출량 상승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은 지난 주 경쟁요일 강세 및 링깃화 약세로 인해 2%가까이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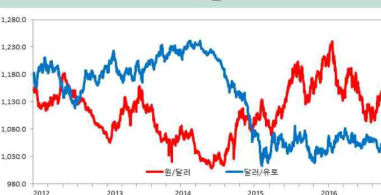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 만 수출 프리미엄은 건조한 중국의 수요에 지지를 받으며 강세를 보임.
- 21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합의 가능성 확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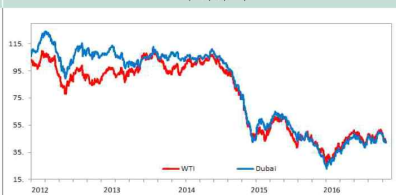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5	▲1.1%	환율	원/달러	1,182.3	▲0.7%
	옥수수	160	▲0.6%		달러/유로	1.0587	▼0.4%
	대두	385	▲0.3%	국제유가	WTI	47.49	▲3.9%
	쌀	346	—		Dubai	44.47	▲3.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1.18(수출가격), '16.11.21(환율), '16.11.2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광주국제식품전서 전남 대표 농식품 알려

- 전남도는 11.17~20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6 광주국제식품전'에 참가해 지역 우수 농식품, 6차산업 인증 제품, 전통발효식품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 '2016 광주국제식품전'은 전국形形色색의 맛을 선보이고, 식품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코트라, (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가 주관하고 정부, 자치단체, 유관단체가 참여해 약 20개국, 240개사가 운영하는 대형 박람회다.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유명셰프쿠킹쇼, 제과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 전남도는 '남도식 발효식품 홍보관'을 운영해 신광수 명인의 작설차, 기순도 전통장, 김영숙 복령떡, 양대수 추성주 등 식품명인 제품과 맑은 물로 빚은 전통술 등을 포함 총 54개사, 244개 품목을 공동 홍보했다. 도지사 품질인증, 6차산업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등을 받은 우수한 제품들을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순천 모후실에서만난차, 장흥 정남진장홍표고(주), 장성 북하특품사업단 등 박람회 기간 동안 바이어 상담이 진행되었다.
-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깨끗한 물, 햇볕, 공기로 천천히 발효된 남도전통식품과 우수 농식품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널리 알리겠다"며 "이번에 참가한 전남의 우수 제품들도 구매 약정과 판매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하여 2016년 11월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한·육우 및 젖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서는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였다.
- 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는 인터넷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검사 확인이 되면 별도 종이증명서 휴대 불필요, 증명서 미 휴대 등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소의 이동으로 인한 농장간의 결핵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축방역관 등이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결핵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은 축산 내·외부 소독과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결핵병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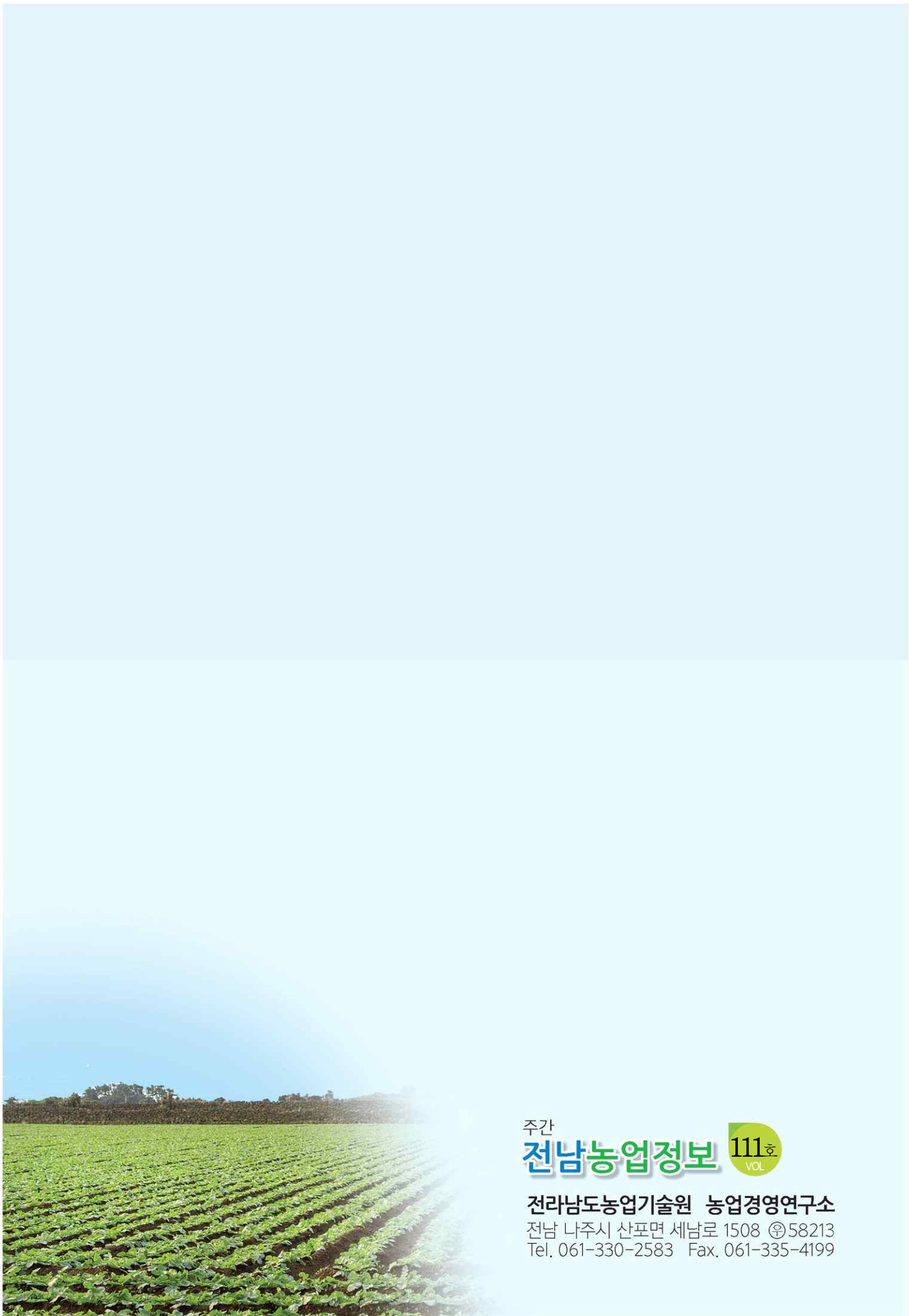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겨울의 시작 ‘소설(小雪)’

- 입동과 대설 사이에 들며 음력 10월, 올해는 양력 11월 22일이다.
-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이 든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소춘(小春)이라고도 불린다.
- 원래는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작은눈)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 소설 무렵, 대개 음력 10월 20일께는 관례적으로 심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차갑다.
- 소설에 따른 농사는 남부지방 김장하기, 어린감나무 짚으로 둘러 싸기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1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